

가축개량기술정보



韓國家畜人工授精研究會
社團法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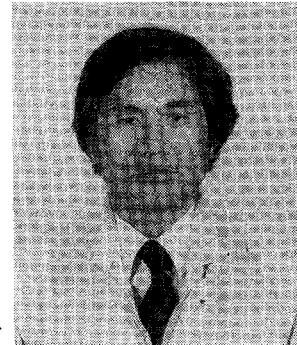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내

발행인: 이재우 전화: 02) 587-0629

02) 586-9408

편집인: 방효범 FAX: 02) 586-9408

작은 의견



부회장 안장호

한문에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이요, 일체유심조(一切有心造)란 말이 있다. 뜻대로 풀면, 모든 일이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안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대로 만들어 진다는 말이다. 이 귀한 말씀의 깊은 뜻은 “보이는 사물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이 더 우선이다”라는 표현이다. 마음에 없는 일이 만들어질 수 없고, 생각이 앞서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떠한 길을 택하여 어떻게 갈 것인가?

매우 어려운 질문(質問)이다. 이 세상에는 지식이 풍부한 학자는 많아도 지혜가 풍부한 현인은 드물다고 했다. 모름지기, 아는 것이 많으면 현명(賢明)해져야 하고, 현명한 사람은 지혜(智慧)로워져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각성(覺醒)할 줄 알고, 자기의 인격(人格)에서 덕기(德氣)가 풍겨야 할 것이다.

각성은 인간 삶의 정신 세계로의 새로운 진입이다. 새로운 자각(自覺)과, 깊은 깨달음이 없는 삶은 이미 죽은 생명이다. 자각(自覺)은 인간 자체의 존재(存在) 위치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첫째, 인간은 사명적(使命的) 존재이다.

사명의 사(使)는 심부름 사자이다. 심부름 받은 자는 일을 해야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다. 사명적인간(man of mission)은 사명감(sense of mission)을 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요(一命), 하늘이 주신 천명(天命)이요, 귀중한 귀명(貴命)이요, 의로운 의명(義命)이요, 변화시킬 수 없는 운명(運命)이요, 심부름 받은 사명(使命)이다. 우리는 어떠한 생명관(生命觀)을 가져야 하나. 나는 사명적(使命的) 생명관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인간은 유물적 존재다.

금전과 재물(財物)은 어디까지나 삶의 수단

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금전과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데서부터 많은 악과 불행이 시작된다. “돈은 주조된 자유다”라고 도스트예프스키는 말했다. 나는 평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부(富)는 청년에게 화(禍)가 되고, 빈(貧)은 청년에게 행복이 된다는 신념을 나는 가진다. 나의 생각이 너무 극단적이면 카네기의 「부의 복음」이라는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引用)해 보기로 하겠다. “청년에게 부를 남기면 대략의 경우 그 청년에게 불리하다. 가난 속에 노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청년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인격(人格)과 양심(良心)이 덜 익은 사람이 돈을 가지면 부패(腐敗)하고 파멸(破滅)하기가 쉽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금전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惡)의 근원(根源)이다”(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s) – 디모데후서 6장 10절 – 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兼)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you cannot serve god and mommon) – 누가복음 6장 13절 –

돈은 인간을 파멸(破滅)시키기 쉽다. 돈을 벌기 위하여 양심을 버리고, 친구를 배반하고, 의리를 짓밟고, 명예(名譽)를 접어던지고, 인격을 팔고, 골육(骨肉)간에 소송을 벌이고, 칼부림을 하고, 살인하는 예가 세상에 허다하다. 돈은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바다와 같다. 이 속에 명예도, 양심도, 의리도, 진리도 모두 빠져 버린다. 돈 앞에 인간은 눈이 멀고, 양심이 마비되고, 인격이 무너진다. 돈은 인간을 철면피로 만들고, 후안무치(厚顏無恥)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존재로 전락시킨다.

세째, 정도정행인(正道正行人)이 되어야겠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양심의 명령이요, 인격의 요구다. 우리가 세우는 목적도 옳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한다. 정(正)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지켜야 할 원칙이요, 따라야 할 도리다. 도리(道理)는 정도(正道)와 순리(順理)를 말한다. 무슨 일이나 정도를 가지고, 순리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인생의 정경대도(正經大道)요, 행동의 기본원리다. 정도를 가야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 우리는 바로주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사, 언, 행(思言行)이 정도정행인(正道正行人)이 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는 저질인(低質人)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례(無禮), 불경(不敬), 교만(驕慢), 독선, 불성실, 무책임, 자존망대(自尊望臺), 오만불손(傲慢不遜), 이는 모두가 저질인의 행동이다. 우리는 양질인(good quality)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만물유도(萬物誘導)다.

우주는 커다란 질서의 세계다. 만약 우주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모든 세상은 끝장이다. 우리는 우주 삼라만상(森羅萬象)을 보고 깨달을 바가 크다. 우리는 자기의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자기의 자리를 바로 지키고,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것이다. 길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나는 나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의 물음에 냉정한 자기 직시(直視)의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할 것이다. 사리사욕(私利私慾)에 더럽히지 않고, 진리(眞理)를 추구하는 깨끗한 마음이 도심(道心)이다.

도(道)는 길이요, 정신(精神)이요, 혼(魂)이요, 규범(規範)이요, 이상(理想)이요, 본질(本質)이요, 핵심(核心)이요, 이념(理念)이요, 정수(精髓)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근본(根本), 그것이 바로 도요, 길이다. 현대 기술 사회에서, 이러한 정신은 많이 상실(喪失)되고, 약화(弱化)되고, 변질(變質)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의 정신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인과응보(因果應報)요,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종과득과(種瓜得瓜)요, 종두득두(種豆得豆)다. 현세에서 이러한 말씀에 합당한 증거들을 눈으로 귀로 많이 보고 들으면서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데는 인색(吝嗇)하거나 않은지? 적어도 우리는 자기가 설자리를 알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자기를 중심으로 연결된 모든 이들과의 관계(關係)에서 자기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현명(賢明)한 건전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건전인은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아는 사람이요, 나의 얼굴에도 미소를 짓고 상대의 얼굴에도 미소지 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이다. 바로 사는 것은 진실하게 사는 것이요, 성실하게 사는 것이요, 아름답게 사는 것이요, 명분을 중시하며, 보람 있게 사는 것이다. 나의 행동에 의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상대에게도 유익이 있으며 나도 즐거울 수 있고, 상대에게도 즐거울 수 있게 하며, 그 국가를 발전시키게 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성실한 노력으로 양축가의 얼굴에 미소 지을 수 있게 하고, 한국 축산진흥에 기여(寄與)하며,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從事)하고 있음을,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며, 보람과 긍지(矜持)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요, 노력하지 않는데도 얻어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느냐가, 어떠한 것을 거둘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요, 서로 보완적(補完的) 존재라고 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협력 함으로 힘을 모으고, 겸손(謙遜)함으로 경거망동(輕舉妄動)을 삼가하고, 장유유서(長幼有序)를 알아 예의(禮義)를 지키고, 진정(眞正)으로 뭉쳐서 힘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뭉쳐진 힘이 약함으로 해서, 우리의 진정한 의견이나

주장이 많은 이에게 알려질 수 없었고,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답답하고, 애닳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뭉치고 협력(協力)함으로써 우리의 갈 길을 열었고, 어느 정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일이 주어졌고, 우리가 하는 일에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 수행상 수많은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있어, 많은 고생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국 우군 전체를 전산화시키는 사업을 우리 수정사 여러분의 손으로, 그 바탕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 모두가 모든 수정사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협력으로, 얻어지고 있는 결실이며, 계속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쏟아 부어, 개량의 첨병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어려워지는 W.T.O. 체제 속에서, 국내 축산발전에 기여하며, 양축가와 우리 회원 여러분 모두가 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눈 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인 존귀한 본인의 삶을 욕심(慾心)으로 오염(汚染)시키는 우매(愚昧)한 소인배(小人輩)가 되지 말고, 적어도 한국축산 발전의 기초석(基礎石)을 놓고, 제대로 된 집을 짓기 위하여, 열(熱)과 성(誠)을 다하여 개량(改良)의 씨를 뿌리는 생명의 창조자(創造者)로서, 명분(名分)과 명예(名譽)를 지키는 현명한 지혜인(智慧人)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감히 이렇게 작은 의견을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 위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협회 애로사항 농림수산부에 건의

(1) 1996년 2월 29일 농림수산부장관 초청 축산단체장과의 간담회시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국가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발급 및 수정사 재교육 예산 지원 확대 요망(가축인공수정사협회)

- 국가적인 행정규제 완화 분위기와 가축인 공수정이 기피 업종화 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면허발급요건의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수정사 재교육 예산은 '94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9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수정사 보수교육예산지원: ('94) 30백만 원 → ('95) 19 → ('96) 37

(2) 1996년 2월 22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소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안 건의

1. 귀표 장착 기피 농가

❖원인

- 홍보부족에 의한 거부(도단위 순회교육으로 끝나고 군단위 또는 별도로 아무것도 없다.)
- 시·군에서 하달되는 공문 및 지시내용이 당초 도별 순회 교육시와 다르다.
- 일제 때 한우 공출한 사례에 대한 반감
- 과세자료로 노출될 염려
- 영세율적용 사료 구입에 대한 불안
- 유산 및 가축 부상 염려

- 개량단지내의 한우 구판매시 불편사례를 보고 거부

❖대책

1. 매매 거래시 우시장에서의 제한 규정
2. 도축시 제한 규정의 법적인 보완
3. 농가 및 우시장 중개인, 도축장 도부 교육철저

2. 전산화 요원의 부상

❖원인

- 본인의 부실도 있겠으나 난폭한 소의 장착시 어쩔 수 없이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음.(공무집행 중임을 의식하고 건의 쇄도)

❖대책

- 공상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기금 확보로 최소한의 보상비 지원

3. 송아지가 유산되는 경우

❖원인

- 막상 귀표 장착 현장에서 보면 성우의 경우
 - 70~80%가 임신상태에 있어 실제 장착할 대상이 급감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요원이 애착이나 빨리 끝내야 겠다는 성취감에 충만되어 있음
 - 축주가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실수가 있을 수 있음
 - 귀표 장착이 주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음

❖대책

- 사전 대책이 없었으므로 요원들 불만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고 실제 0.1%도 안 되는 사고 이므로 계속적인 사업의 추진

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금화 보로 농가의 호응을 받음은 물론 요원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어야 함.

❖ 사례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용산리에서 7개월령 유산으로 관내의 수정사 회원들이 기금을 각출하여 100만원을 보상처리 합의한 바 있음

4. 개량차원의 자연교배 근절

전산화 사업 추진 중 재차 발견되는 내용으로 자연종부가 30% 가까이 육박, 대단히 심각한 상태이며 다수 사육자 일수록 많고 대규모화 될수록 확산될 조짐임.

불량형질의 확산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역행 및 양축기반의 기초가 파괴될 상황임.

농가는 송아지를 생산 사육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임신만 시켜 비싼 값에 시장 출하하고 있음.

❖ 원인

1. 농가의 간편한 사육 번식방법 선택
2. 개량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
3. 임신우의 가격 상승폭 이익추구
4. 사양경비 절감이라는 의식 팽배

❖ 대책

1. 축산법 8조 및 12조 규정을 강력하게 촉구 요망
2. 개량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
3. 전산화 농가사례비 지급은 자연교배 송아지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정한 뒤 제외 조치

5. 전산화 요원의 선정 잘못

❖ 원인

- 행정의 편의적 해석과 집행 추진

❖ 대책

- 추진계획에 의거한 실제 전문가의 활용

❖ 사례

- 전남 곡성지역에서 수정사를 제외하고 무조건 이장이나 공익요원이 귀표를 장착하거나

- 경남 통영지역에서 수정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도서지역까지 수정사의 배정, 활동하고
- 의정부시 전역에 수정사들이 많은데도 수정사 1명, 축협일반직원 1명에 한해 실시하고 있음
- 구리시 - 수정사들을 제외시키고 낙우회 직원 선정

6. 전산화 요원 관리를 위한 단체지원

수정사의 활동과 사업의 홍보 및 격려 교육 관리를 자율적 민영화된 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수정사협회의 제도적인 지원이 긴요한 실정임

7. 송아지 생산 사례비 지급 지연

❖ 원인

1. 일제 등록과 동시 시행의 어려움으로 늦어짐.
2. 행정의 홍보 착오
3. 시·군별 지침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4. 시·군별 지침이 뒤늦게 시달되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

❖ 사례

- 경남지역은 96. 2. 1 이후 송아지 생산 분에 한해 지급한다고 하고
- 충북 청주는 일제 등록 완료 후 귀표, 장착기, 조사표 등을 추진위원회에서 회수하여 공동 보관하고 송아지 부문에서는 별도 일정을 정해 추후 재조사후 지급토록 예정 중에 있음
- 전국 공통으로 농가 불신만연과 등록 요원 입장 난처

❖ 대책

1. 행정 지침의 일원화 채시달이 요망됨
2. 송아지 생산 신고시 등록 요원의 이표장착과 함께 사료비와 사례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요망
3. 젖소 송아지 생산 사례비도 지급 요망됨.

8. 귀표의 탈락시

❖ 원인

1. 소 개체의 난폭도에 따른 탈락

2. 농가 고의로 폐어냄
3. 도축장에서 도살전에 이표를 폐고 신고토록 유도하고 있음

❖대책

1. 귀표의 재발급 처리 절차 홍보
2. 우시장거래시 도축시 성실보고 유도
3. 우시장 중개인 및 도축장 교육
4. 무자격 중개인 정비(문전거래 허용이 문제임)

9. 기타 행정적 보완 사항

○ 폐사축 신고 및 처리

1. 이표장착 후 폐사되는 소에 대하여 폐사검안서 첨부시 농가에 부담되는 경비 문제로 기피
2. 따라서 수정사 신고의 어려움-농가 실질적 손실로 원망 들을 소지 있음
3. 공체제도의 기금 확보 및 철저한 시행 요망됨

위와 같이 열거 된 문제점의 보완이 요망되며 일원화된 행정적 지침의 제작 시달이 긴요한 실정임

(3) 1996년 4월 11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소수금관리 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

1. 관련호에 의하면 한우개량 단지내 관련 대상우의 이표장착 수수료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지역 축협에서 전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장착을 하여도 장착사례비 3,000원은 지급할 수 없다는 지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2. 당초 전산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도순회 교육시 이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었고
3. 95년 12월 초순 이표 장착 중에 이 문제가 야기되어 종축 개량협회에 문의한 결과 개량단지내 등록우에 대하여는 민간 수정사가 장착을 하지 말라는 말과 또한 장착을 하였다 손 치더라도 사례비 3,000원이 지급이 안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4. 그러나 일선 시·군 추진 위원회에서는 민간

수정사들에게 계속해서 개량단지 내 소에 대하여도 (등록된 소에도) 이표 장착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할당된 지역에 가서 수정사들이 개량단지 내 소에 대하여도 이표를 장착하였으며

5. 일부 수정사들 중에는 혹시나 해서 농림수산부 축산물 유통과에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한 바 시·군 추진 위원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라는 언질을 받은 바 있어 이표 장착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6. 이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는 개량단지내 소에 대한 이표 장착 사례비를 지급하고 또 사례비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7. 막상 축협소속 지도원들은 이표 장착 사례비가 지급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군에서는 서둘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에서, 또한 정확한 지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발생한 행정 시행착오로 보여집니다.

본 협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 ① 행정지침시달 및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로 발생한 일이기에 이제 와서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 이전에 장착 된 것은 모두 사례비를 지급토록 하여 전국적으로 들끓는 혼란이 수습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강력히 건의 드리며
- ② 앞으로 개량단지내 소라 하더라도 축협소속 지도원이건 민간수정사 이건 간에 구분 시키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하여는 모두가 참여토록 하여 주심과 (한 부락 1개면 내에서 등록된 것은 축협이 하고 실격된 소는 민간 수정사들이 하고 하는 이중의 모순성)
- ③ 개량단지 내 축협 소속 지도원이라 할지라도 이표 장착에 참여 하였으면 3,000원의 사례비를 지급토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분기 이사회 결과 보고

1. 일시: 1996. 1. 30

2. 장소: 협회 사무실

3. 의장: 이재우 회장

4. 진행: 방효범 국장

국민의례

인사말: 의장

* 성원보고: 13명 중 경기남, 경남, 충북 불참

하고(경기남, 경남은 위임장을 보냄)

보고사항

1. 협회활동 보고

2. 수정사 보수교육 결과 현황

3. 수정란 이식교육 결과 현황

4. 소 전산화 순회교육 결과 현황 보고

5. 4/4분기 결산보고

6. 감사 결과 보고

2/4분기 이사회 결과 보고

1. 일시: 1996. 4. 26

2. 장소: 협회 사무실

3. 의장: 이재우 회장

4. 진행: 방효범 사무국장

5. 국민의례

인사말

6. 보고사항

○ 협회 활동사항 보고

○ 총회 결과 보고

○ 1/4분기 수입·지출 결산 보고

○ 회비 납부 사항

7. 의안 심의

○ 특별 기금관리 규정에 따른 세부계획에 관하여 회원 1인당 30만원씩 군·지부단위로 모금, 금년 말까지 납부하기로 결정을 보았음.

○ '96수정사 보수교육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호남권, 영남권, 서울 등 3개 권역에서 6회에 걸쳐서 실시하기로 농림수산부에 건의키로 협의되었음.

8. 기타 토의

○ '96년도 회비납부에 관한 회원 조정

폐회

협회활동 보고

1. 8 축산관련 단체장 신년 교례회 참석

1. 10 경남지역 임원회의 참석

1. 23 전남 총회 참석

1. 24 육종연구회 참석(서울대 농대)

1. 25 경북총회(경북 영천) 참석

1. 30 95년도 하반기 감사 및 96년도 1/4분기 이사회

2. 7 소전산화사업 중간 평가회 참석(종개 협 소회의실)

2. 9 경남 총회 참석

2. 12 경기북부 총회 참석

2. 23 전북 총회 참석

2. 29 96 총회 개최

2. 29 농림수산부장관 초청 축산관련 단체장, 학회장 간담회 참석

3. 7 충남 총회 참석(홍성)

3. 15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 방문
96년 수정사보수교육 협의

3. 19 강원도 총회 참석(원주)

3. 19 한·미 낙농강습회 참석(종개 협)

3. 21 축협 유우개량사업부 방문 현안 협의

1996년 총회 결과 보고



1. 개최권자: 이재우 회장
2. 개최근거: 정관 제13조
3. 개최 통보일: 1996. 2. 13
4. 개최일시: 1996. 2. 29. 10:30
5. 개최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 대회의실
6. 참석대의원 96명(위임 7명 포함)
7. 재적대의원: 178
8. 회의 사항

* 회의 진행 순서

회순에 따라 제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
을 하다.

1부 진행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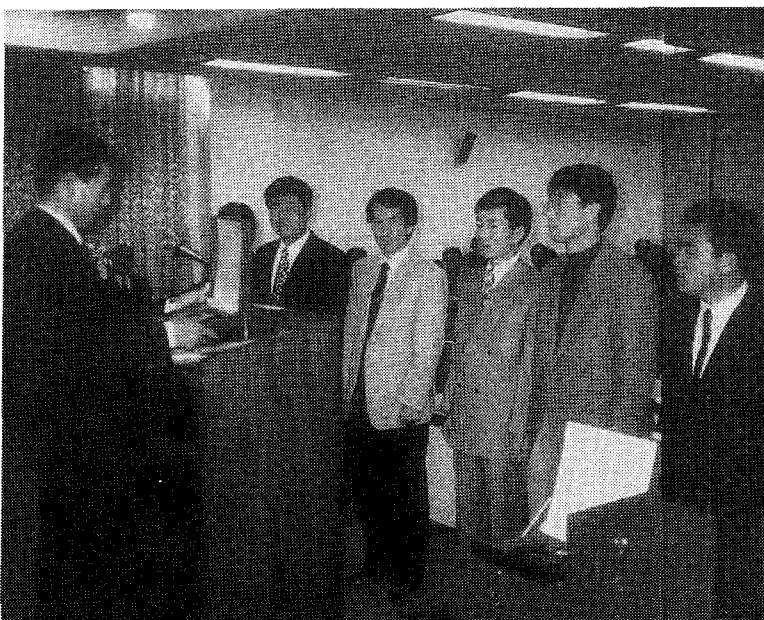
1. 개회, 국민의례에 이어 농림수산부장관 표
창장 전수(김의성, 김본종)가 있고 감사패
와 공로패 수여가 있음

감사패 수여자

| 성명 | 직위 | 비고 |
|-----|----------------|----|
| 김경남 |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장 | |
| 성진희 | 본 협회 고문 | |

공로패 수여자

| 도지회 | 상호 | 성명 | 비고 |
|------|--------|-----|----|
| 경기북부 | 유일수정소 | 이상익 | |
| 경기남부 | 정동수정소 | 박정수 | |
| 강원도 | 근덕수정소 | 김진만 | |
| 충청남도 | 섭다리수정소 | 홍성기 | |
| 충청북도 | 완성수정소 | 김증산 | |
| 전라남도 | 가나수정소 | 이해범 | |
| 전라북도 | 남원수정소 | 박노동 | |
| 경상남도 | 제일수정소 | 황선열 | |
| 경상북도 | 상주시 지부 | 단체상 | |
| 계 | 9명 | | |



2. 이재우 회장의 인사말
3. 축 사: 설동섭 종축개량협회장
4. 격려사: 이용빈, 정영채 박사
5. 각도지회장과 직원 소개
6. 중 식

제2부 _____

- * 전회의록 접수
- * '95년도 협회 활동사항 보고
- * '95년도 감사보고
- * '95사업 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 안
- * '96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 * 특별기금 관리 규정안
- *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을 한다.

질의사항 요약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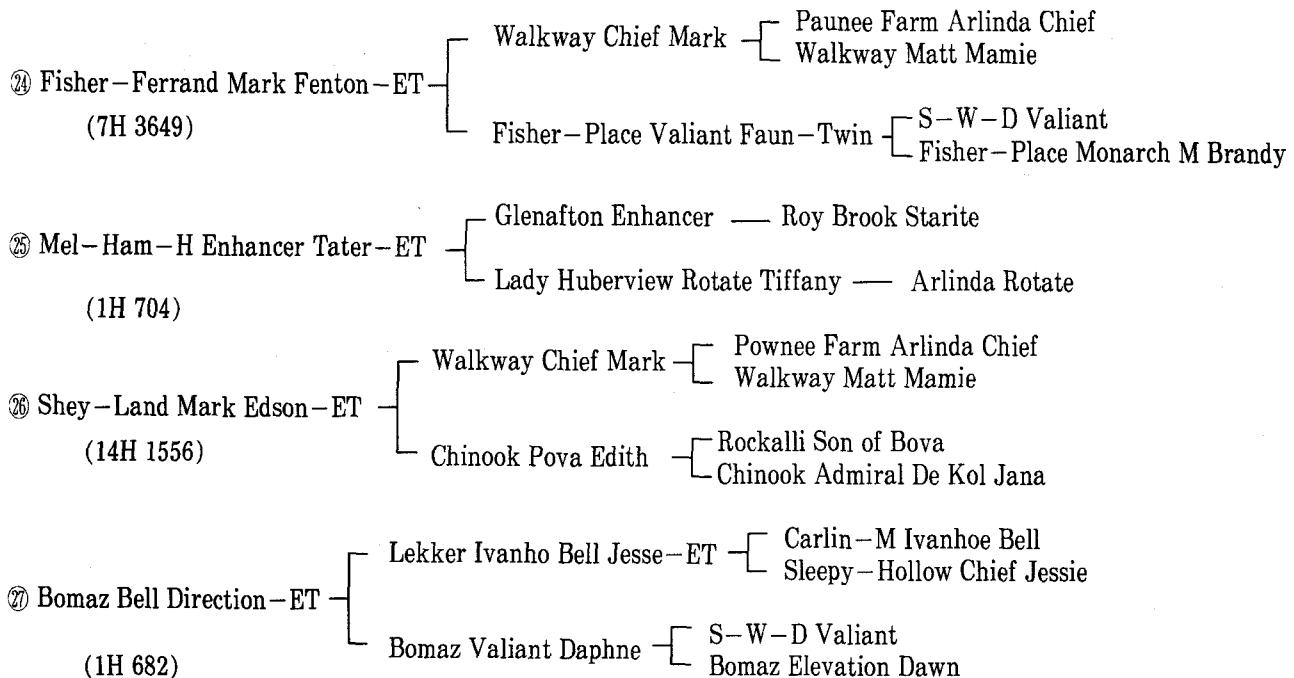
- *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조치 계획
- * 협회비 미수금에 대한 조치 방안
- * '95년도 인건비를 많이 사용치 않은 이유
- * 특별기금 관리에서 한시적으로 기금을 마련 토록 요청
- * 수정사들이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지출하자
- * 각도별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계획을 만들자
- * 자가 인공수정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 * 축협 정액 불매 운동을 벌이자
- * 자가 인공수정용 정액이 자가 아닌 타가에 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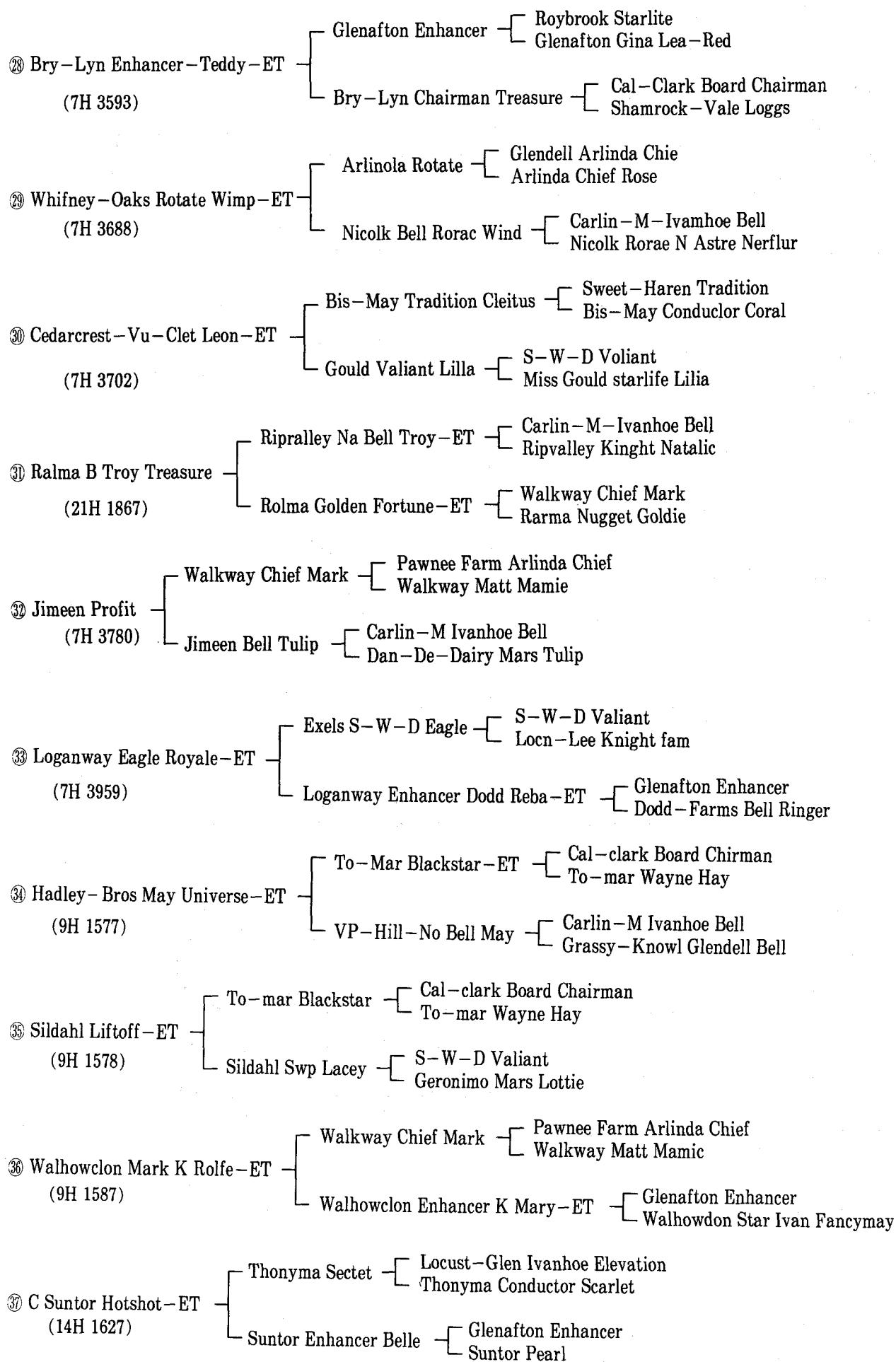
도지회 활동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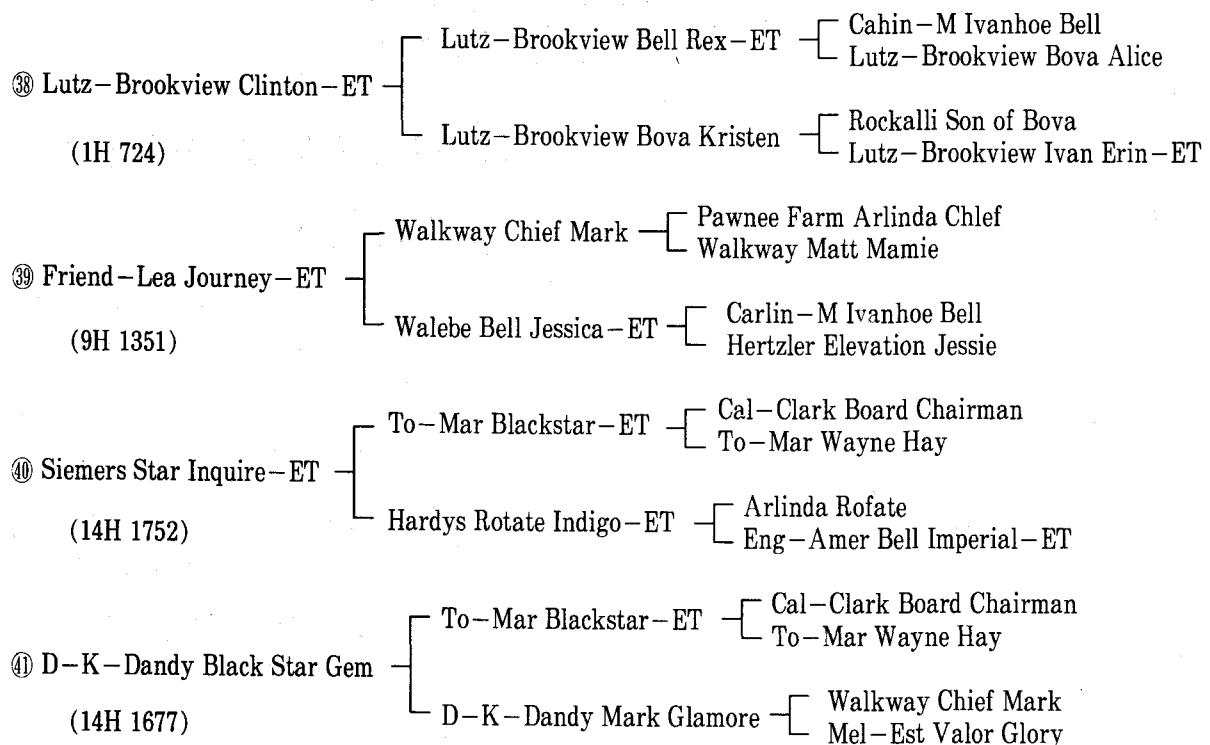
전라남도 도지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정란 이식 교육을 전남대학교의 지원하에 1개반이

매일 2시간씩 3주간에 걸쳐 5개반으로 편성 (1개반 14명) 실시하고 있음.

협회 공급 정액 혈통 내역







14H1752 SIMERS STAR INQUIRE-ET TL(인콰이어 #2128647) TPI+1146

+ 생산능력

| 딸 소 평 균 | | 생 산 능 력 | | | | 외 모 능 력 | | | 체형생산 능력지수 |
|--------------|------------|----------------|----------------|-----------------|------------------|-----------------|---------------|------------------|--------------|
| 유 량 (파운드) | 유지율 (%) | 산유증가량 (파운드) | 유지증가량 (파운드) | 단백질증가량 (파운드) | 능력신뢰도 (REL %) | 외모증감차 (PTAT) | 유방형질 (UDC) | 외모신뢰도 (REL %) | T P I |
| 22424 | 3.71 | 885 | 36 | 39 | 70 | 1.70 | 0.97 | 75 | 1146 |

(95년도 하반기 성적임)

14H1677 D-K-DANDY BLACK STAR GEM TL(젬 #2119143) TPE+1146

1232

+ 생산능력

| 딸 소 평 균 | | 생 산 능 력 | | | | 외 모 능 력 | | | 체형생산 능력지수 |
|--------------|------------|----------------|----------------|-----------------|------------------|-----------------|---------------|------------------|--------------|
| 유 량 (파운드) | 유지율 (%) | 산유증가량 (파운드) | 유지증가량 (파운드) | 단백질증가량 (파운드) | 능력신뢰도 (REL %) | 외모증감차 (PTAT) | 유방형질 (UDC) | 외모신뢰도 (REL %) | T P I |
| 23,907 | 3.6 | 1583 | 51 | 59 | 69 | 0.68 | 0.45 | 69 | 1232 |

(95년도 하반기 성적임)

부스틴-에스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소 산유력증강제

(L) 개요 및 작용기전

■ 부스틴-에스란?

부스틴-에스는 젖소의 우유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엘지화학이 독자적인 유전공학기술로 개발한 유전자 재조합 보바인소마토트로핀 제제로서 1회 주사로 2주간 산유량증가 효과(10~20%)가 지속되는 획기적인 소 산유력 증강제입니다.

- (주)엘지화학이 개발한 소 산유력증강제
- rBST 500mg+비타민 E 1800mg 함유
- 국내 독자기술에 의한 첨단 유전공학 제품
- 산유량 증가와 사료효율 향상

(L) 부스틴-에스의 특장점

■ 우유증산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부스틴-에스 투여후 2~3일 후부터 산유량이 증가되며, 평균 20%의 우유생산량이 늘어납니다.

■ 우유품질에 변화가 없고 안전합니다.

우유 품질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인체 및 젖소에 대한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공인되었습니다.

■ 사용이 편리합니다.

1회 투여로 2주간 효과가 지속되며 투약기를 사용하므로 주사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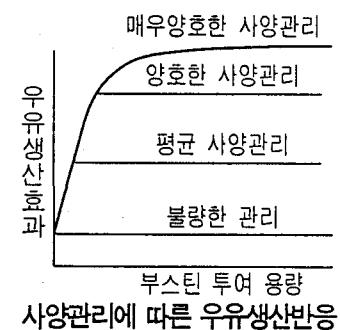
■ 낙농가의 실제 순수익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부스틴-에스 20두 투여시 연간 순수익 증가액은 340만원 정도로 국내낙농업계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의 유용한 대처방안입니다.

(L) 사양관리 및 올바른 적용방법

■ 양호한 사양관리의 중요성

- 많은 임상시험에서 사양관리의 부실은 부스틴-에스의 투여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스틴-에스 투여에 의한 최대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양호한 사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부스틴 투여 용량
사양관리에 따른 우유생산반응

■ 부스틴-에스의 올바른 적용방법

1. 투여우의 올바른 선정방법

- 유량: 목장내에서 유량이 중간범위(70~80%)인 젖소
- 산차: 초산우 보다는 경산우
- BCS(몸꼴): 3이상(최소 2.75이상)
- 유방염, 부제병 등 질병이 없는 젖소
- 사양관리 부실 목장은 임신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적절한 투여시기

- 비유피크 지나서 유량이 5~10% 감소된 때 투여 개시하여 일반적으로 분만 후 90~250일 기간에 적용시 효과가 우수 합니다.

3. 지속적인 효과의 유지 방안

- 다음 산차 적용시 좋은 효과를 위하여
⇒부스틴 적용기간 중 적정 BCS유지
- 젖소 상태에 따라 사용간격의 조절
⇒2주 간격의 1회가 정상이나 상태에 따라 3~4주 간격 주사
- 건유전 적정 BCS회복을 고려해서
⇒사용중단 시기를 건유 1개월전(3.5유지)
- 유방관리 철저: 과착유 예방



韓國家畜人工授精師協會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호

축산회관빌딩 201호

TEL: 586-9408, 587-0629

FAX: 586-9408

137-073

□ □ □ - □ □ □